

나주시, 축산 농가 사료값 부담 완화 나선다

고품질 동계 사료작물 수확 박차 기계·장비 10대 지원 생산 확대 제조 운송비 46억원 투입 등 수입 의존도↓ 경영 안정 보탬 “조사료 생산 중심지 육성 노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고품질 동계 사료작물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과 제조운송비를 지원해 생산량을 늘려 수입 사료작물 의존도를 낮추고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가축 사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동계 조사료는 9~10월 중 파종해 이듬해 5~6월 중 수확을 한다.

시는 5월 중 잦은 강우로 인한 작업 여건을 감안해 6월 초까지 조사료 경영체(법인) 52곳을 집중적으로 투입·지원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동계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는 곤포 담근덕이 조제 이용 시 출수 후기에서 개화기까지 수확하는 것이 좋다.

개화기엔 수분함량이 70~75% 낮아져

사일리지 조제에 유리하고 건물수량(수분 완전 제거 후 수량)도 많아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 수분이 많을 때는 2일~3일 정도 예건해 사일리지를 조제하면 된다.

나주시는 올해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에 필요한 결속기 등 기계·장비 10대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해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수확량 조사에 따른 조사료 제조운송비에 46억원을 투입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7억원을 투입해 동계사료작물 품질 등

급제를 추진하는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힘쓰고 있다.

전국 최대 조사료 산지인 전라남도에서 나주시역 조사료 재배면적은 3800ha, 벧짚은 6000ha로 도내 약 10%를 차지한다.

운병태 시장은 “불안정한 한우 가격에 비해 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나주를 조사료 생산 중심지로 육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화순군, 6월2일까지 창구 운영

전라남도 화순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 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윈스톱 신고 창구를 6월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화순군청 개별주택 가격 조사실(본관 5층)에서 운영하며 오는 27일부터 6월2일까지는 광주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일시납(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9월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국한돼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2일까지 해야 한다.

구현진 화순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다”며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민간관광안내소’ 신규 모집 화순군, 홍보 거점 역할 기대

전라남도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관광안내 체계 강화를 위해 ‘화순군 민간관광안내소’ 신규 모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 중심의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 관내에서 관광안내 기능이 가능하고, 일정 시간 체류가 가능한 업소로, 카페·음식점·숙박시설·문화공간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민간관광안내소는 오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되며 관광홍보물 비치, 관광 안내 지원, 안내소 현판 및 진열대 설치를 통한 홍보 등의 역할 수행을 한다.

재단은 이번 모집을 통해 민간관광안내소 총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는 추가로 5개소 내외를 협력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춘란 재배온실 임대 희망자 모집 화순군, 36개소… 6월20일까지

전라남도 화순군이 ‘춘란 재배온실 임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 재배 온실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춘란 산업 활성화와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 대상 온실은 능주면 만수리 556-8번지에 소재한 총 36개소(각 32.4㎡)로, 스마트팜 제어시설과 차광시설 등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다.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1실로 제한된다. 연간 임대료는 110만원이며 별도의 월간 운영비 2만원이 부과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춘란 재배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임대 신청은 14일부터 오는 6월2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처는 화순군 한국난산업화단지추진TF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7월 중 사전 교육이 제공되며, 이후 추첨을 통해 온실 자리가 배정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관내 애호박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육 단계별로 병해충 진단과 예방, 포장별 생육환경 점검 등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지역 특화작목 ‘애호박’ 재배 현장 지도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역 특화작목인 애호박의 연중생산 기반 구축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애호박 육성 현장컨설팅’ 지원이 관내 애호박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까지 추진된다.

컨설팅은 애호박 전문가가 재배 농장

에 방문해 1:1 개별 상담으로 진행된다. 작기 중 생육단계에 맞춘 병해충 진단과 예방, 포장별 생육환경 점검 등 농가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해 현장 교육도 지원한다. 교육은 병해충 발생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생육관리 표준화 등 실용성 있는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애호박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연중 생산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애호박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인 만큼, 이번 현장 컨설팅이 농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과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 프랑스 현지서 천연염색 문화 소개

‘한국의 봄’ 축제 참가

전라남도 나주시가 프랑스 현지에서 지역 고유의 색인 천연염색 문화를 소개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14일부터 6월1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 (Le Printemps Coreen) 축제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나주의 전통 염색 기술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 친환경 가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전통 공예의 진면목을 유럽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봄’은 매년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국문화 축제다.

공연과 전시, 영화와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유럽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 문화행사 성격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재단은 축제에서 자연에서 얻은 색을 활용한 천연염색 원단과 다양한 의류 작품을 전시한다.

천연염색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한국 전통미의 정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친환경 공예로서 천연염색이 지닌 지속가능한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

스 발표자로 참여해 나주에서 재배되는 쪽(藍) 식물 염료의 특징과 활용 방식, 환경적 장점,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천연염색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이번 축제 참여는 천연염색 분야가 유럽 국가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사례로, 지역 전통 문화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천연염색은 자연과 공존해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색과 철학을 담고 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탄소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축제를 통해 천연염색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양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제16회 데이지 장미축제’ 담양군 민간정원 ‘축화경’서 5월17일~6월6일

전라남도 담양군 제2호 민간정원인 ‘축화경’에서 ‘서로 함께하는 꽃들의 만남’을 주제로 ‘제16회 데이지 장미축제’가 열린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17일부터 6월6일까지 봉산면 유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화경은 수백 종의 초화류와 관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민간정원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들이 계절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어난다.

봄에는 데이지 장미축제, 여름에는 유럽수국축제가 개최되는 등 남도 특유의 정원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정원 속에서의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된다.

축화경 관계자는 “화사한 봄날, 수많은 식물과 어우러진 장미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